

예수 성심 성월

오양숙 마르타



여봐라, 저 바다 위에 날아가는 것이 사다새가 아니더냐!
사다새는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새이니, 좋은 징조로다! 허허허!

장군, 사다새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허, 그걸 아직도 몰랐단 말이나? 궁금하면 어서 초등부 교리 교안을 살펴
보도록 하여라!

▣ 학습 목표

- ① 예수님의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을 담고 있음을 안다.
- ②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도 기도와 실천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한다.

교안 요약

시작 기도	· '예수 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
도입	· 인사, 예수 성심 성월 소개
전개	· 예수님의 마음과 펠리컨 이야기 ·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 기도와 실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해요.
작업	· 하트 편지와 예수님 마음 액자 만들기
마침 기도	· 『어린이 미사』 143번 '예수 마음'

☞ 시작 기도

아래의 기도를 아이들과 함께 바친다. 아이들을 두 조로 나누어 교송으로 해도 좋다.

예수 성심께 천하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굶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굶어 죽지 않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 도입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이 며칠인가요? 맞아요. 6월 〇〇일이에요. 6월이 혹시 무슨 성월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가톨릭교회에서는 6월을 '예수 성심 성월'로 정해서 예수 성심께 대한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을 굳건히 하는 기간으로 삼고 있어요. 예수 성심이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마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우리 모두를 향한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을 특별히 묵상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기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어야 하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척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받으며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느낄 수 있나요? 매주 봉헌하는 미사 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성체성사가 있지요? 우리는 성체 성사를 통해 예수님의 크고 위대한 사랑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만 보세요

6월 12일은 '예수 성심 대축일'입니다. 이 날은 예수 성심을 특별히 공경하는 축일로, 성체 성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다음 첫 금요일에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의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자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고, 피와 물이 흘러 나왔습니다(요한 19, 34 참고). 성체성사와 연관지어 생각해 보면, 피는 인간의 죄를 씻어줄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어 주신 은총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물은 세례성사와 관계있는데,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며 그분의 공덕으로 사람을 정화시켜 주는 생명의 원천을 상징합니다.

☞ 전개



www.deepbluenine.com

(사다새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 주며) 여러분, 혹시 이 새가 어떤 새인지 아나요? 부리 밑에 큰 주머니를 달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익숙하지요? 맞아요. 이 새는 사다새, 즉 펠리컨이라는 새예요. 어미 펠리컨이 물고기를 먹어 조금 소화시킨 다음 이 그릇처럼 생긴 턱 주머니에 뱉어 주면 새끼들이 그것을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펠리컨이라는 새에게는 전설이 있어요. 먹을 것이 부족하여 새끼들이 굶주리게 되면 자신의 가슴을 부리로 찢아서 가슴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새끼들에게 먹여 살린다는 전설이지요.

아프고 고통스럽게 피를 흘리면서도 펠리컨이 자신의 가슴을 찢는 이유는 자신의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펠리컨의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님과 많이 닮지 않았나요? 그래서 펠리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새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성시간마다 하는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라는 기도문에도 이 펠리컨이 나와요. 성시간이 무엇이냐고요? 예수 성심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보통은 매월 첫 금요일 저녁 때 이 시간을 갖지요. 그러면 우리 함께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를 기도해 볼까요?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 었디어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 알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히 계시오나
우러러 뵈옵수록 전혀 알 길 없삽기에
제 마음은 오직 믿을 뿐이옵니다.
 - 보고 맛보고 만져봐도 알 길 없고
다만 들음으로써 믿음 든든해지오니
믿나이다. 천주 성자 말씀하신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참된 진리 없나이다.
 - 십자가 위에서는 신성을 감추시고
여기서는 인성마저 아니 보이시나
저는 신성, 인성을 둘 다 믿어 고백하며
뉘우치던 저 강도의 기도 올리나이다.
 - 토마스처럼 그 상처를 보지는 못하여도
저의 하느님이심을 믿어 의심 않사오니
- 언제나 주님을 더욱더 믿고
바라고 사랑하게 하소서.
 - 주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사여,
사람에게 생명 주는 살아있는 빵이여,
제 영혼 당신으로 살아가고
언제나 그 단맛을 느끼게 하소서.
 -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
 - 예수님, 지금은 가려져 계시오나
이렇듯 애타게 간구하오니
언젠가 드러내실 주님 얼굴 마주 뵈고
주님 영광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소서.
 - ◎ 아멘.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가슴을 부리로 찢아 먹이는 펠리컨의 깊은 사랑은 우리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양식으로 내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기도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 미사 시간마다 성체와 성혈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아 모시며 굶주리지 않고 살아가지요? 예수 성심은 이렇게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무언가 보답을 해야 할 텐

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을 보답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작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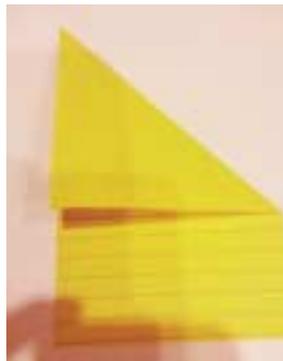
준비물

A4 크기의 머메이드지 1장, 무늬 색종이 2장,
예수 성심 상본 혹은 그림, 작은 편지지, 가위, 풀, 펜



작업1 하트 편지 접기

〈종이 접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 성심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웃에게 어떤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고 선생님이 나누어주는 편지지에 써 보기로 해요. (편지지를 나누어 주고 실천 사항을 세 가지 정도씩 적어 보도록 한다.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부모님 심부를 잘하기,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기, 어려움에 처한 친구 도와주기, 길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등의 예시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자신이 쓴 편지를 가지고 예쁜 하트 편지를 만들어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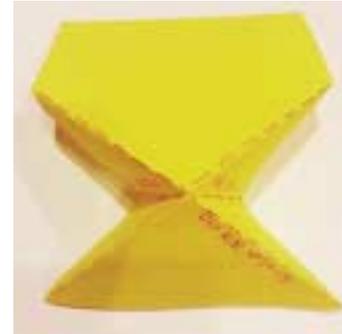
① 편지지 상단 오른쪽 모서리를 왼쪽 테두리에 맞춰 삼각형으로 접었다가 편다.



② 편지지 상단 왼쪽 모서리를 오른쪽 테두리에 맞춰 삼각형으로 접었다가 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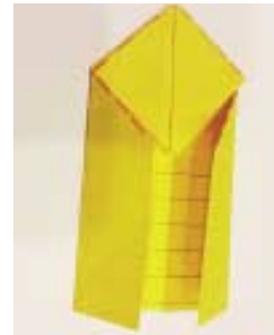
③ 대각선의 교차점에 맞춰 위에서 아래로 접었다가 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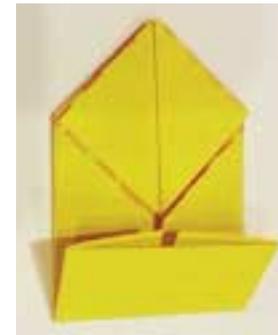
④ 편지지를 뒤집어 삼각형 부분은 안으로 들어가게 눌러 컵과 같은 형태로 만든다.



⑤ 뒤집으면 집 모양이 된다. 지붕에 해당하는 삼각형 하단의 양쪽 모서리를 가운데 선에 맞춰 접어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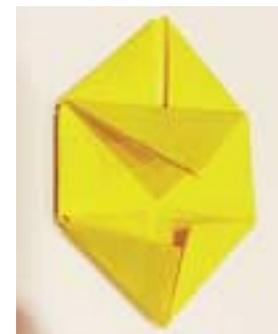
⑥ 집의 몸체에 해당하는 직사각형의 양 옆을 사진과 같이 접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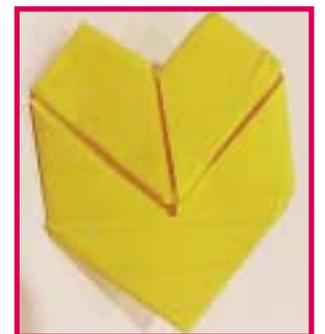
⑦ 아래 테두리를 잡고 반을 접어 올린 뒤 뒤집는다.



⑧ 지붕에 해당하는 삼각형을 아래로 접어 내리고, 사각형 하단의 양쪽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접어 올린다.



⑨ 반으로 나뉜 삼각형의 위 꼭지 점을 양쪽 바깥을 향해 삼각형으로 접어 내린다.



⑩ 뒤집으면 하트 편지가 완성된다.

작업2 예수님 마음 액자



① 무늬 색종이 2장을 정사각형 넷으로 나누어 자른다. 작은 정사각형 색종이가 총 8장이 필요하다. 각기 다른 색이면 더 예쁘니 아이들이 서로 색종이를 교환할 수 있게 해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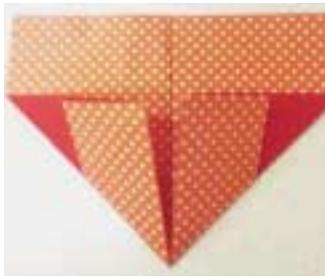
② 색종이를 위에서 아래로 반 접고, 또 반 접었다가 편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반 접었다가 편다.



③ 맨 아래 한 단을 위로 접어 올린다.



④ ③을 뒤집어 가운데 점선에 맞춰 양쪽 모서리를 접어 올린다.



⑤ ④를 뒤집어 아래 삼각형의 꼭지점을 위의 직선의 가운데까지 올려 접는다. (사진의 화살표 참고)



⑥ ⑤를 뒤집어 상단 직사각형의 양쪽에 손가락을 넣어 눌러 삼각형으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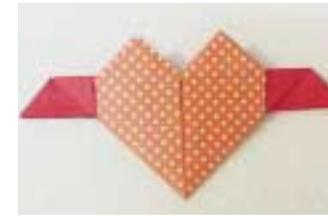
⑦ 제일 위에 위치한 두 사각형의 상단 모서리들을 세모꼴로 반 접어 내린다.



⑧ 앞면을 보고 하트 모양이 나왔는지 확인한 뒤 다시 뒤집어 사각형의 밑단을 두 번 접어 올린다.



⑨ 띠에 해당하는 양쪽 끝을 삼각형으로 접어 둔다.



⑩ ⑨를 여덟 개 만들어 풀을 발라 연결한다.



⑪ 원형 액자 틀이 만들어지면 뒷면의 띠 부분에 풀칠하고 머메이즈에 붙인다.



⑫ 동그랗게 모양을 따라 가위로 오리고 예수 성심 상분이나 그림을 액자 안에 붙인다.



⑬ 작업1에서 만든 하트 편지를 액자에 붙이고, 끈을 고리 모양으로 만들어 뒷면에 달아 벽에 건다.

◇ 정리

친구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 성심'이라고 부른다는 것도 배웠고요.

사랑은 받기만 하고 나누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희생하고 나누는 마음이에요. 내가 조금 귀찮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가진 것을 나누며 생활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늘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로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하트로 적어 드린 우리들의 사랑 실천을 일주일 동안 꼭 실천하기로 약속해요.

◇ 마침 기도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어린이 미사』 143번 '예수 마음'

오양숙 마르타
의정부교구 평내 성당에서 17년 간 어린이부 교사로 봉사한 뒤, 현재는 의정부교구 교육부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